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시작, 시민 공감 정책 제안 기대

- 이정근, 김재관, 서경옥 대표의원으로...
전통시장, 청년장애인, 경로당 등 주제 다양

보령시의회가 2023년도 의원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간위원 5인과 조장현, 서경옥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3개 연구회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고 등록을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3개 연구회는 ▲보령시 전통시장^愛 the새로움 리디자인 연구회(이정근, 백성현, 성태용, 김정훈), ▲보령시 청년장애인 자립·취업 지원 방안 마련 연구회(김재관, 박상모, 조장현, 추보라), ▲보령형 경로당 운영 모델 개발 연구회(서경옥, 최은순, 김충호, 백영창)이다.

각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이정근, 김재관, 서경옥 의원은 연구활동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상모 의장은 “연구회 활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각자 소속된 연구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근 대표의원



▲ 김재관 대표의원



▲ 서경옥 대표의원

보령시의회 보령댐 특위, 댐 주변 지역 상생 위해 목소리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금강유역본부 방문, 댐 주변 명소화 사업 등 제안
- 김정훈 위원장 “시와 보령댐의 미래지향적인 상생 방안 마련 지속 협의”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보령댐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추보라, 백영창, 이정근, 김재관 위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최은순, 서경옥 의원이 함께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보령댐과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필요 사안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 등 일행은 금강유역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차례로 찾아 경영처장, 물관리기획처장 등 관계자에게 보령댐 생태관광 명소화를 위한 계획수립용역 공동수행, 물부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및 댐 퇴적토 준설 등을 제안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방문

아울러, 부사호 염도 상승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웅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보령댐은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시설이지만 댐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등 피해는 오롯이 보령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와 보령댐이 미래지향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강유역본부 방문